

## 해양풍력 주변의 선박 통행상황 한눈에 살펴본다

- 9월 9일(수)부터 2개 해상풍력단지 대상 '선박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중우)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풍력단지 운영자가 주변해역 선박통행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해상풍력 맞춤형 통항안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오는 9월 9일(수)부터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과 한림해상풍력단지에 시범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연안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늘어나면서 풍력단지 인근 선박통행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풍력단지 주변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해 '바다내비\* 중앙센터'에서 분석한 선박 운항 정보 등을 해상풍력 환경에 맞춰 고도화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특히 선박의 단지 진입과 풍력발전기 접근을 자동 감지하여 충돌 위험이 높은 경우 경보를 제공한다.

\*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 해역 운항선박에 실시간 전자해도, 충돌·좌초 위험경보 및 해양안전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

이를 통해 단지운영자는 위험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안내방송과 비상조치 등 신속한 초동대응을 취할 수 있어 현장안전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운영자는 별도의 장비설치 없이 해수부에서 제공하는 웹기반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선박통행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해상풍력단지 2개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상풍력단지 안전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해상교통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상풍력단지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현재 국회에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안전수역을 설정하는 등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는만큼 조속한 심의와 의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           |     |     |                    |
|-------|-----------|-----|-----|--------------------|
| 담당 부서 | 해사안전국     | 책임자 | 과 장 | 한승현 (051-773-6141) |
|       |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담당자 | 사무관 | 김상현 (051-773-6038) |
| 담당 부서 | 해사안전국     | 책임자 | 과 장 | 이민중 (051-773-5810) |
|       | 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용석 (051-773-5820) |